

“쌀 과잉물량 6만 수매 약속 지켜라”

쌀전업농연 “정부 추가수매 안해 가격 하락 부채질”

일부 지역선 보관시설 부족 길거리 야적 부패 우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물량을 수매하지 않아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보관시설 부족으로 벼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바람에 부패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생산량이 424만1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급안정차원에서 연간 수요량(400만t)을 초과하는 18만t을 우선 수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6만t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농가의 원활한 출하를 돕기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지원자금으로 1조23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18만t을 수매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6만t의 물량은 추가 수매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조원의 세수결손 등으로 기

재부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시하자 추가 수매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쌀값은 20kg 기준 4만670원으로 지난해 1월(4만3247원)보다 6% 하락했다. 현재로서는 이같은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쌀 재고현황에 따르면 현재 쌀 재고는 110만 5000t으로 전년보다 11.5% 늘어났다.

이와 함께 보관 시설 부족에 따른 쌀의 부패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쌀 잔여물량을 시장격리에 시급히 나서고도 벼 보관 창고가 부족해 야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보관 창고가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된 양만 1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변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3일 성명

서를 통해 “현재 시장의 쌀 가격은 80kg(5일 기준)들이 한 가마에 16만 2016원이고, 열흘 전에 비해 0.2%(276원) 떨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설상가상 설 명절이 끝난 현재 그 감소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유통업체의 예측이 만연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쌀 공급 과잉물량 6만 톤 추가격리’에 대한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달 초부터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및 집회, 기재부 항의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월 하순부터 기온상승 등으로 야적된 벼의 변질·부패가 우려되고 육묘장 등에 보관된 벼더미가 3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벼 육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격리조치가 지연되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한·중FTA 중단 쌀 전면 개방저지’를 촉구하며 벼를 야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외수출 한국쌀 가격경쟁력 확보 시급”

농림부, ‘쌀수출가이드북’ 발간

국내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국내 쌀 소비 감소와 시장 개방에 맞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한국쌀 수출에 필요한 전략을 담은 ‘쌀수출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 쌀의 수출여건과 호주 등 한국쌀 수입 주요국의 현지 동향을 담았다.

우선 한국쌀 수출여건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됐다. 한류붐과 K-POP 등에 따라 아세안, 중남미, 미주, 유럽 등 한식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 레스토랑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기 때문에 국산 식재료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로 진출한 한식당은 ▲일본 4500~4900개 ▲중국 2500~2900개 ▲동남아시아 1200개 ▲미국 1000~1300개 ▲아세안 400개 등 약 1만개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한국산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는 95개, 브랜드 110개, 매장수 2717개에 달

한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식 레스토랑과 스시붐 등도 한국산 쌀의 잠재적 수요처로 평가된다.

책에서는 한국쌀을 많이 수입하는 해외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제시했다.

호주의 경우에는 수요가 가장 많은 교민들을 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교민과 유학생 등이 비싼 한국산쌀보다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호주는 지난 2013년 우리 쌀을 743t 수입했다.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인마켓 판매 및 한식당 등 교민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쌀과 한국산 쌀을 비교할 때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올 채소류·축산물 수급·가격동향 전망

배추, 시장격리 조치 가격 변동 가능성 돼지고기, 사육수 증가로 가격 하락 전망

양파 재배면적 감소 값 상승 육우는 사육 줄어 도매가 ↑ 닭고기 가격은 소폭 오를듯

배추 가격은 전년보다 낮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고, 무 가격은 전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각종 채소류와 축산물 수급·가격동향을 통해 이 같이 예측했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육우와 닭고기는 전년보다 오르고,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2014년 겨울 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출하기(1~4월)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부가 겨울 배추 4만t에 대해 시장격리를 해 앞으로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무=2014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4% 많아 출하기(1~5월) 가격은 전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월동무 주산지인 제주에서 비상품 출하를 자제하고 자체 시장격리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가격은 전망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양념 채소=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고 마늘과 양파는 전년 대비 각각 4%, 8% 감소하며, 대파 재배면적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고추와 마늘 가격은 평년과 비슷하고 양파 가격은 수확기인 4월까지의 지난해 말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지만 수확기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과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육우=사육 마릿수는 전년의 276만 마리보다 3.6% 감소한 266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5.4% 감소한 24만6000t, 쇠고기 수입량은 3.3% 증가한 29만t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로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지난해 1만4283원 보다 4.2% 상승한 1만4878원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1001만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올해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1618만마리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5만 3000t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3.1% 감소한 24만t 내외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올해 자육가격(빠있는 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11.6% 하락한 4241원(kg당)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육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8760만마리, 도계 마릿수는 4.3% 증가한 9억2350만마리로 전망된다. 생체 kg당 육계산지 가격은 전년대비 0.9% 상승한 1587원으로 전망된다.

◇오리고기=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33.6% 증가한 949만 마리로 예상된다.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 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2.7% 하락한 kg당 6965원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들이 채소와 축산물 수급·가격동향을 참고하면 농축산물 시장에서 합리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산업 체계적 육성 새로운 통계 만든다

해수부,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해양수산부가 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수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분야 통계는 어업 생산 위주로만 제공돼 왔다. 이 때문에 수산업 전체 산업 규모와 종사자를 한 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실제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림어업총조사 ‘어가인구’ 통계는 해수면에서 어업을 하는 경영자 가구만을 조사 대

상으로 해 수산업 전체 종사인구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관련 통계가 없어 어가인구가 수산업 전체 종사인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1~3차 산업을 포함하는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산업과 수산인을 행정대상으로 포괄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산업 특수분류는 수산업과 수산관련산업의 27가지 대분류를 토대로 90개 업종(세세분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출물의 유사성, 국내 수산업의 여건,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작성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p>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꽃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p>	<p>아트타운갤러리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 전시대관 접수합니다. 관장 정 인 ☎062)232-7141 010-5608-1878</p>	<p>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익상실원) 부대찌개, 찌개, 찌개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p>
<p>시골식당 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선집, 오리로스, 생선매운탕, 회무침 대표 조공숙 ☎062)227-4565</p>	<p>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화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p>	<p>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p>
<p>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미사희 건너편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p>	<p>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 2차뜨란채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대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p>	<p>무지개문화센터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코너 종목별 댄스스포츠 및 공예 수강 모집. 밸리댄스, 리본공예, 훌라호프, 노래교실 등 대표 오성자 ☎062)529-1188</p>	<p>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제휴점) 이마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생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p>
<p>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p>	<p>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홀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p>		
<p>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다나베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71입구인숙촌옆) 호남최고 맞춤형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p>	<p>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p>
<p>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